

■ 일반논문

에비슨의 사상*

여 인 석

연세대학교 의사학과

1. 서론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은 1893년 조선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1935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왔다. 한국근대사에서 에비슨과 같이 오랜 기간, 다방면에 걸쳐 한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공헌한 외국인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가 조선에서 사역을 마치고 귀국할 때, 그가 받은 전별첩에 이름을 남긴 인사들의 면면을 보거나, 그가 귀국을 위해 서울역을 떠날 때 그를 배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몰려든 인파들을 보더라도 한국근대사에 에비슨과 같은 비중을 지니며 사회 각층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외국인을 찾아보기 어려움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의료선교사로 조선에 왔고, 또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그가 이 땅에서 이룬 일은 단순히 협의의 '선교'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의료선교사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유능한 의사들을 길러낸 교육자로서, 또 세브란스와 연희라는 두 큰 기관의 운영을 책임진 경영자이기도 했다. 이처럼 그는 누구보다도 정열적으로 활동한 행동의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그의 행동을 가능케 만든 배후에는 그의 확고한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물론 그는 새로운 사상의 산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사상가는 아니다. 그러나 그가 이룬 커다란 활동의 성과들은 결국 그의 확고한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그의 사상과 행동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의 사상은 그만큼 현실성을 띠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에비슨의 사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해보고 그것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본 논문은 2009년 연세의대 일반교수연구비(과제번호 6-2009-0085)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2. 종교사상

에비슨은 기독교 선교사였다. 따라서 이장의 제목을 그의 기독교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기독교에 대한 그의 생각뿐 아니라 조선에 와서 경험한 조선의 고유한 종교들에 대한 그의 태도와 생각도 함께 다루기 위해 기독교사상보다는 포괄적인 종교사상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조선에서 에비슨은 의료를 통한 복음전파라는 의료선교사의 직무에 충실했다. 그렇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가 복음전파보다는 의료 자체에 더욱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의학생을 가르치고, 이들을 위한 국문교과서를 편찬하고, 만든 의학교를 발전시키고, 보다 큰 병원을 짓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활동은 단순히 복음전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의료를 활용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가 선교사업이 아니라 의료나 교육사업 자체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 실제로 병원 건축을 위해 세브란스 씨가 기부한 1만 달러의 사용을 두고 평양의 선교사들이 보인 반응과 세브란스 의전의 운영방식에 대해 젊은 의료선교사 데마레가 제기한 이의는 에비슨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에비슨의 의료사상에 대한 항목에서 다루겠다.

이처럼 에비슨은 동료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전도가 아니라 의료자체에 지나치게 열중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그의 믿음과 기독교에 대한 그의 생각은 다른 어떤 복음선교사보다 확고하고 건강한 것이었다. 이는 조선의 선교사로 떠나기 이전 그가 토론토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에비슨은 자신이 “광신적이지는 않았지만 다분히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다고 말한 바 있다.¹⁾ 기독교인으로서 그의 신앙은 광신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의 의과대학생 시절에서부터 나타난다. 당시 토론토에서 의과대학생들의 평판은 좋지 않았는데 이는 과음과 그에 따른 소동으로 인한 것이었다. 의과대학에 입학한 직후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에비슨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학생금주단체를 구성했다.²⁾ 물론 금주가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활동 속에 절제에 대한 에비슨의 종교적 태도가 드러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에비슨은 의과대학생 시절 기독교청년회를 조직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기독교청년회는 당시의 해외선교열풍에 힘입어 학생해외선교회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1) 올리버 R. 에비슨 지음, 박형우 역, 『올리버 R. 에비슨이 지켜본 근대한국 42년』(서울: 청년의사, 2010), 136쪽.

2) 에비슨, 같은 책, 125쪽.

에비슨은 여기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모임에서는 매달 선교잡지를 발간하기로 했으며 에비슨은 편집인이 되어 직접 잡지발간을 주도했다. 그는 이 잡지를 학생들에게 읽게 하여 이 사업에 동참해주시기를 권하기도 했다.³⁾ 그리고 에비슨은 스스로도 자신이 해외에 의료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에비슨이 참여한 의과대학의 이 선교모임은 규모는 작았지만 내실이 있었고 훌륭한 성과를 맺었다. 에비슨과 함께 이 모임을 주도한 하디(Robdert A. Hardie, 1865-1949)가 에비슨과 더불어 조선으로 파송되어 활발한 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에비슨의 회고에 따르면 이 모임에 참여한 다른 회원들도 거의 모두가 해외 선교사가 되었다.⁴⁾

에비슨은 이 모임의 활동을 통해 그의 생애를 통해 그에게 중요한 사상적 가치가 되었던 종교적 포용성을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 이 학생 해외선교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다양한 교파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에비슨 자신은 감리회 신자였고 그밖에도 미국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 등 다양한 교파에 속한 학생들이 참여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파적 배경의 차이가 그들의 활동에 장애요소가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런 경험을 통해 에비슨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교파라는 것이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⁵⁾ 이러한 포용성에 대한 에비슨의 생각은 그가 조선 파견에 즈음해 경험한 일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에비슨은 일찍이 조선에 파견되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에비슨이 소속된 캐나다 감리교회는 조선에서의 사역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에비슨에게 조선으로 가는 길은 막혀 있는 듯했다. 이때 조선에 파견할 의료선교사를 찾고 있던 미북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를 통해 에비슨을 적임자로 추천받고 그에게 조선의 의료선교사직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에비슨은 감리교신자인 자신이 장로교단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미북장로회 해외선교부의 총무였던 엘린우드(Frank F. Ellinwood)는 장로회는 감리교 신자인 에비슨을 장로교 신자로 만들 생각이 없으며, 에비슨이 훌륭한 감리회의 열정을 갖고 한국에서 선교사업을 열심히 해줄 것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장로회의 포용성에 감동을 받은 에비슨은 자발적으로 교적을 장로교로 옮겼다.

조선에 파견되기 이전 에비슨이 가졌던 이러한 경험들은 그가 조선에서 활동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미북장로교가 지원하여 만들어진 세브란스 병원과 의학교를 미북장로교 소속의 기관으로 유지하는 데 연연하지 않았다. 병원과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교파들과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에비슨은 교파의 틀을 벗어나 세브란스를 교파연합기관으로 만드는데 노력했고, 그 결과 세브란스는 미북장로교 소속의 기관

3) 에비슨, 같은 책, 137쪽.

4) 에비슨, 같은 책, 139쪽.

5) 에비슨, 같은 책, 127쪽.

에서 교파연합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에비슨 자신의 노력과 함께 감리교도인 에비슨을 조건 없이 장로회 선교사로 파견했던 장로회의 포용적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에 에비슨이 조선의 종교를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그것이 가진 좋은 점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 또한 그가 경험했던 이러한 포용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에비슨은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전형적인 독실함과 신앙적인 확고함을 갖고 있었다. 이는 그의 생애 여러 고비에서 확인된다. 특히 조선으로의 출발을 앞두고 그의 아이들이 성홍열에 걸렸을 때 그가 취한 태도에서 이러한 신앙적 특성이 잘 나타난다. 에비슨은 조선으로 출발하기 위해 준비하는 와중에 그의 세 어린 자녀들이 모두 성홍열에 걸렸다. 농양,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처한 아이도 있었다. 이에 에비슨의 주변 사람들은 아이들의 질병을 거론하며 에비슨이 선교사로 떠나는 것에 반대했다. 그렇지만 에비슨은 확고했다. 설령 아이가 병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원래의 계획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그는 단호히 말했다. 또 밴쿠버에 도착할 때까지 아이가 살아 있어 배에 승선할 수 있으면 조선으로 갈 것이고, 만약 아이의 병을 이유로 승선을 거부당한다면 그때는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토론토에서 대륙횡단철도를 타고 밴쿠버에 무사히 도착했고, 그 과정 중에 아이는 회복이 되어 아무런 문제없이 배를 탈 수 있었다.⁶⁾ 사실 자식이 생사를 넘나드는 지경에 처한 상황에서 부모가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의 계획대로 먼 곳으로 떠나는 준비를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에비슨은 선교사로서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따라서 자신에게 배를 탈 수 없는 물리적 상황이 닥치지 않는 한 조선으로 떠나는 것은 신의 섭리라는 강한 확신을 가졌던 듯하다.

신의 섭리에 대한 그의 믿음은 세브란스 씨로부터 병원 건설을 위한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병원 건립 모금을 위해 뉴욕에 간 에비슨은 엘린우드를 만나 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 결과 선교부의 허락을 받았다. 그렇지만 문제는 비용이었다. 그런 가운데 엘린우드는 서울에서 활동하다 아내의 병 치료를 위해 귀국해 있던 에비슨의 동료 선교사 밀러 목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에비슨의 병원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엘린우드가 에비슨이 기부를 할 만한 돈 많은 사람을 별로 알지 못해 모금이 성공할지 모르겠다고 다소 회의적인 투로 말하자 밀러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에비슨 씨가 친한 부자들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⁷⁾ 에비슨의 독실함은 아마도 동료 선교사인 밀러에게도 깊

6) 에비슨, 같은 책, 141-3쪽.

7) 에비슨, 같은 책, 274쪽.

은 인상을 남겼고, 그런 이유로 밀러는 에비슨이 비록 유력한 인사들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뜻하는 바를 신앙의 힘으로 이룰 수 있으리라는 점을 예견한 것이다. 이러한 밀러의 예견대로 에비슨은 세브란스 씨로부터 병원 건립을 위한 1만 불을 기부 받게 되었다. 그 후 에비슨은 세브란스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병원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하자, 세브란스 역시 자신도 1년 전부터 병원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어디에 건축하면 좋을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에비슨의 연설을 듣고 그곳이 바로 서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한다.⁸⁾

그밖에도 에비슨은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기도에 의해 이루어진 여러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나의 전 생애는 기도에 대한 지극히 명백한 응답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없이 다른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경험을 증언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 약속한 것에 부합할 따름이다”라는 고백을 하였다.⁹⁾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에비슨의 종교적 체험이나 신념과 관련된 것들이다. 에비슨은 의학자였지 신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힌 경우는 별로 없다. 그렇지만 다음에 언급하는 사례는 에비슨이 개인적 차원의 신앙 체험뿐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의 분명한 견해를 갖고 있었음을 잘 말해준다.

김 부인이란 전도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보수적인 유교 집안에 속해 있었으므로 그녀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에 따라 집안사람들로부터 의절을 당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오빠 중 한 사람이 기독교 교리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너는 네 신이 사랑의 신이며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말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신은 죄도 만들었다는 말인데 그것은 나쁜 일이다. 너의 사랑하는 신은 왜 그런 나쁜 것을 창조했지?”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한 그녀는 에비슨을 찾아와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했다.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은 사실 초대 교회로부터 제기되어온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의 하나였다. 신은 절대선이고 이 세계를 창조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절대선인 신이 악도 창조한 결과가 된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의 하나는 악한 신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의 투쟁이라는 동방종교의 이원론적 신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의 결과이다. 그렇지만 유일신 종교인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이원론적 신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고 이 분명한 모순을 방치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그 자체로 적극적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여라는 이론으로 이 난점을 돌파하려고 했다. 이 대답은 이후 악의 존재에 대한 기독교의 공식적인 견해가 되었다.

8) 에비슨, 같은 책, 285쪽.

9) O. R. Avison, “Instances of Answered Prayer”, *Korea Mission Field* 16-2(1920), pp. 29-32.

에비슨은 김 부인이 받은 질문이 역사가 오랜 질문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용한 것과 유사한 논리로 이에 답했다. “어떤 올바른 것이 있다면 당연히 올바른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흰색이 있으면 검은색이 있습니다. …… 이 세상의 사물들은 항상 반대로 일어납니다. 그것의 대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은 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는 정의의 반대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있으니 결과로 자연스럽게 있는 것입니다.”¹⁰⁾ 에비슨은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죄악을 선의 결여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올바른의 반대개념으로, 그리고 올바른이 존재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개념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동일한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이 죄를 만들지 않았으며, 올바른 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점을 에비슨은 강조했다. 이상의 에피소드를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에비슨은 정통적인 신학적 견해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선교사상

선교사로서 에비슨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조선에서 지냈다. 그와 같이 오랜 세월을 조선에서의 교육과 선교에 헌신한 그에게는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사상이 있었다. 실제로 그는 여러 기회에 걸쳐 자신의 선교 철학을 밝힌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선교, 교육, 의료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는 이 세 가지 일을 별개의 일로 보았다기보다는 서로 연결된 사업으로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라는 점에서 가능한 이 세 측면을 분리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그는 선교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전략을 갖고 있었다. 그는 조선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를 설정했다.¹¹⁾ 첫 번째는 다양한 계층의 한국인들 사이에서 충분한 수의 활동적인 기독교 개종자를 얻어 온 나라를 일신시킬 수 있는 토대를 놓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들 개종자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 현재 우리(외국인 선교사)가 하고 있는 일을 넘기고 그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성숙한 기독교의 열매의 사례가 될 수 있는 사회적 기관을 제공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사회 전체적인 규모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의 이상을 공유하는 것이다.

10) 에비슨, 위의 책, 227쪽.

11) O. R. Avison, “Can It be Done?”, *The Korea Mission Field* 20(1924), p.8. 이하 *The Korea Mission Field*는 KMF로 약함.

에비슨은 1924년 당시 첫 번째 목표, 즉 장기적인 기독교 전파의 초석이 될 최소한의 기독교인의 확보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제는 그 이후의 사업에 진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에비슨은 선교에 관한 그의 생각을 잘 말해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우리가 이 나라를 개종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자. 대신 우리의 역할은 기독교를 도입하고 자생적인 활동(*native mechanism*)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자.”¹²⁾ 여기에 에비슨의 핵심적인 선교사상이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 에비슨은 그것이 선교전 교육이건 의료이건 자신들 외국인 선교사들의 역할은 일을 시작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한국인들이 그 일을 맡아 완성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즉 선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가 되어 한국인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의 입장에 서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¹³⁾

아마 자조사상(自助思想)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을 이러한 태도는 에비슨 사상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만약 어떤 민족이 여러 세대가 지나도록 여전히 선교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 들인 노력을 시작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¹⁴⁾이라고까지 했던 것이다. 실제로 외부의 원조나 도움이 습관이 되어 자활의 필요성이나 의지를 상실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에비슨의 이러한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선교사들의 역할이 한시적이며 그것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선교는 지속적이고 영구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시작이 있고 또한 끝을 가진다. 선교사는 와서 그의 목적이 달성되면 떠나야한다. 그 사이의 기간이 그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고 결국 그는 ‘출구’라고 적힌 문을 통해 나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던 것이다.¹⁵⁾

에비슨의 이러한 사상은 그의 은퇴에 즈음한 1934년 젊은 의료선교사 데마레와의 논쟁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표현된다. 데마레는 세브란스의 운영방침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제기한 핵심적인 문제는 세브란스가 일본의 정책과 시스템을 지나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세브란스의 교수진에서 선교의사들이 점차 배제되어 그 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는 문제를 제기했다.¹⁶⁾ 그에 대해 에비슨은 세브란스에서 일하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만두는 것은 본국의 선교부에서 지원이 끊어지

12) O. R. Avison, *Ibid.*, p.8.

13) O. R. Avison, *Ibid.*, p.8

14) O. R. Avison, “The Future of Medical Mission”, *KMF* 30-6(1934), p.116.

15) O. R. Avison, *Ibid.*, p.111.

16) E. W. Demaree, “The Future of Medical Missions in Korea”, *KMF* 30-4(1934), p.74.

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데마레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브란스의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¹⁷⁾ 그리고 세브란스에서 선교사들의 사임으로 권한이 점차 한국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 데마레가 우려를 표하자 에비슨은 이는 자연스런 것이며 세브란스의 교육현장에서 선교사들이 철수하는 것은 언어의 문제가 크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세브란스 의전의 할 일은 선교의사들을 위한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그 자리를 떠맡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울러 선교병원과 의학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데마레는 지극히 이상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그에 따르면 과학적 의학을 가르칠 수 있는 몇 개의 의학교육기관과 각 분야를 전공한 선교의사들과 좋은 설비가 갖추어진 병원을 만든다. 그리고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도록 한다. 그리고 돈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 인재들을 길러낸다. 이 작업이 가장 어려운 데 이를 위해서는 선교의사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¹⁸⁾ 데마레는 의학교육과 수련제도는 미국식을 이상적 모델로 제시하고, 거기서 기독교적 사랑으로 충만한 학생들을 길러내자는 것이다. 물론 이런 비전은 이상적이다. 그렇지만 데마레가 현실적인 조건들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음을 에비슨은 지적한다. 우선 총독부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상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즉 졸업한 학생들이 정당하게 면허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학교육이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당국의 정책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의학교육은 미국이건, 캐나다이건 어디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에비슨의 답변이었다.¹⁹⁾

사실 의학교육과 관련한 데마레의 문제제기는 세브란스가 일본 문부성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한 데서 나왔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이 선교기관으로서 세브란스의 색깔을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었다. 물론 데마레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현지의 제도와 요구를 무시하고 이상적인 길을 고집할 수만도 없다. 세브란스가 문부성 지정을 받는다는 것은 세브란스 졸업생들이 조선뿐 아니라 일본, 만주 등 당시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영토 어디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졸업생들의 장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사실 일제하에서 사립학교, 더구나 기독교 계통인 세브란스는 많은 차별대우를 받았다. 세브란스 졸업생들의 의사로서의 임상적 능력은 관립학교 출신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관립학교 출신들에게는 졸업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의사

17) O. R. Avison, *Ibid.*, p.114.

18) E. W. Demaree, *Ibid.*, p.75.

19) O. R. Avison, *Ibid.*, p.116.

면허를 따기 위해 별도의 시험을 보아야했다. 그것도 조선에서만 시술이 가능한 제한적 면허였다. 따라서 졸업생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문부성 지정은 당시로서는 시급한 과제였으므로 세브란스는 문부성 지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사실 세브란스가 성공적으로 한국사회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에비슨의 이러한 현실주의와 현지주의에 기인한 바가 크다. 앞서 언급한 자조(自助)와 현실주의, 그리고 현지주의가 에비슨의 선교사상을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일 것이다.

4. 교육사상

에비슨은 의료선교사이기도 했지만 뛰어난 교육자이기도 했다. 그는 의학교육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그의 목표와 철학은 그의 선교사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사실 에비슨이 처음 조선에 올 때 의학교육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크게 염두에 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의료선교사로 이 땅에서 의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박한 바람을 갖고 왔다. 그런데 막상 조선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그는 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에비슨은 의료활동을 통한 복음전파도 중요하지만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 보건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파하고 위생상태를 개량하는 일이 시급함을 느꼈다. 그렇지만 몇 명 되지 않는 외국인 의료선교사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의료선교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의료활동을 해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극히 일부 환자들만을 치료할 수 있을 뿐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질병을 예방하고 과학적 의술과 위생사상을 보급하려면 한국인들을 서양의학에 능통한 의사로 양성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된 그는²⁰⁾ 의학교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렇지만 에비슨의 의학교 설립 구상에 대해 선교부는 부정적이었다. 선교부 일각에서는 의료사업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의료가 처음 단계에서 낮은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켜 선교의 문을 여는 데 유용한 수단임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단계가 지난 이후에 의료사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시각이 존재했다. 실제로 세브란스 씨가 기부한 1만 불의 사용처를 두고 평양 측 선교사들이 지나치게 훌륭한 병원은 선교부를 단순한 자선단체로 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러한 시각을 단적으로 말해준다.²¹⁾ 더구나 의학교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병원을 열어

20) 에비슨, 앞 책, 307쪽.

21) 에비슨, 앞 책, 287쪽.

운영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의 지속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원래 선교의사들은 진료를 도와주는 조수를 두었다. 이들을 학생조수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간단한 의학적 지식을 가르쳐 환자간호, 처방전 작성, 수술시 보조, 또 의사가 부재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교의사들은 조수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정도의 단편적 의학지식을 가르치는 데 그쳤지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통해 이들을 의사로 양성하겠다는 생각까지 하지는 않았다. 그에 반해 에비슨은 이들을 단순히 조수로서만 교육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 사람의 온전한 의사로 키우기를 원했다.

그런데 학생 모집의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에 처했다. 에비슨은 처음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의학교육을 시작할 생각으로 몇몇 청년들을 접촉해보았다. 그러나 학식 있는, 다시 말해 상류층 자제들은 병원에서 하는 일이 더러운 것들을 만지는 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자 누구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즉, 노동을 천시하는 양반 계층에게 의사는 결코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에비슨은 하층 계급 출신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의학교육을 시작했다. 그들은 몸으로 하는 노동에 거부감이 없었고, 에비슨의 표현에 따르면 일을 즐겨하는 사람들이었다.²²⁾ 에비슨은 이들에게 병원에서 환자 보는 것과 관련된 실무를 가르치는 틈틈이 기초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에비슨은 지극히 중요한 일을 수행한다. 그것은 국문 의학교과서를 만드는 일이었다.

사실 의학교육과 관련된 에비슨의 업적 중 가장 큰 공헌 중 하나는 바로 이 국문 의학교과서 편찬 작업이었다. 에비슨은 의학생 교육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문 의학교과서 편찬을 시작했지만 이는 더욱 넓은 시야에서 보면 서양근대의학의 토착화이자 그 주체적 수용이라는 커다란 의미를 갖는 작업이다. 해부학 교과서 편찬으로 시작된 이 작업은 의학의 거의 모든 분야의 교과서 편찬으로 확대되었고, 의학사전의 편찬까지 시도되었다. 하지만 1910년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어 국문 교과서를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이 작업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 국문 의학교과서 편찬 작업은 현지화, 토착화라는 에비슨의 기본적 철학이 교육 분야에서 잘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에비슨은 또한 교육을 통해 뿌리 깊은 신분차별의식을 철폐하는 데도 크게 공헌했다. 에비슨은 조선사회의 하층민인 백정들의 비참한 삶을 깊이 동정하여 이들이 받는 사회적 차별을 철폐해줄 것을 조선정부에 건의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백정도 평민과 같은 복식을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에비슨은 단순히 차별철폐를 건의했을 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이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백정 박성춘의 아들 박서

22) 에비슨, 앞 책, 310쪽.

양이 에비슨 밑에서 서양의학을 배워 의사가 되고 또 세브란스의 교수가 되는 과정은 기독교적 평등사상에서 출발하여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이다.

그래서 에비슨은 조선에서 기독교 선교의 성과를 가장 잘 표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의사를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기독교적 교육을 통해 길러진 의사야말로 “최상의 기독교인이자 직업적 이상의 전형”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²³⁾ 에비슨이 이 말을 하기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소위 상류계층에서는 의사 지망생을 구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 에비슨은 의사가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직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에비슨이 이와 같은 확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미 상당 부분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5. 의료사상

의사로서 에비슨은 서양의학과 과학의 가치를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질병에 대해 지극히 실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질병을 악령의 침범으로 보는 민간의 전통적인 질병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악령을 쫓는 일로 먹고사는 사람들, 즉 무당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세히 기술했다.²⁴⁾ 물론 에비슨이 합리적인 서양 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무당들의 치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는 이러한 관행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으며 다소 중립적인 관점에서 샤머니즘 전통의 역사와 관련 의식의 절차들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시작하기 이전에 에비슨이 자신이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훌륭한 품성을 가진 사랑하는 한국인들을 비웃고자 하는 의도 때문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²⁵⁾ 이러한 조심스런 태도는 아마도 조선의 전통문화를 존중하려는 에비슨의 입장을 잘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유가 그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질병을 악령의 침입으로 보는 견해가 조선에만 국한된 특수한 것이 아니며 인류의 보편적인 관념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질병에 대한 그러한 관념은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성서에 그와 관련된 기사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에비슨 자신이 말하고 있듯이 그다지 멀지 않은 과거인

23) O. R. Avison, “Review of Medical Mission Work in Korea”,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1914), p.49.

24) 에비슨, 앞 책, 223-230쪽.

25) 에비슨, 앞 책, 226쪽.

청교도 시대의 미국에서도 신심 깊은 일부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을 보이는 여성들을 악령에 사로잡힌 마녀로 몰아 고문하거나 죽인 일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복음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정신질환을 악령의 소행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²⁶⁾ 즉 악령의 존재 문제는 기독교의 교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공부한 의사이기도 했지만 선교사였던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그는 이러한 사태를 안타깝게 생각했다. 에비슨에 따르면 “그들[선교사]은 숙달되지 않은 주술사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시술했음에도 완치시키지 못한 환자들 중 일부가 기독교인이 된 후에 회복되었을 때 특히 악령의 존재를 확신했다.”²⁷⁾ 그는 전염병이 영적 존재의 침입에 의해 생긴다는 관념이 세균설의 확립 이후 사라진 것과 같이 정신질환 역시 영적 존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육체와 관련이 있다는 실증주의적 견해를 가졌다.²⁸⁾ 그는 과학적 관념과 종교적 관념이 대립할 때 과학적 관념의 손을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에비슨은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학적 관념을 지지했지만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질병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이론과 질병의 치료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에비슨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의사들이 아무리 질병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의사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이론의 가치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에비슨은 강조한다.²⁹⁾

에비슨이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학성을 고집했지만 질병의 치료에 대해서는 과학적 치료수단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세브란스에서 함께 일했던 호주장로회 소속의 정신과 의사 맥라렌(C. I. McLaren, 1882-1957)은 동료 선교의사들을 상대로 흥미 있는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는 의사이자 선교사인 동료들에게 기도의 치료적 효과와 기적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특히 에비슨의 대답이 흥미롭다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에비슨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특별기도 후에는 나 자신의 마음이 보다 고요해지는 것을 자주 느꼈다.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렇게 생각해낸 특별한 치료수단들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나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특별기도 후에 나아지는 것을 자주 보았다. 내가 본 것처럼 위험한 상태로부터의 갑작스런 회복이 특별한 신적인 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닌지를 나는 알지 못한다. 또한 나는 특별기도가 반드시 회복을 이끈다고 말할 수 없다. 간절한 기도를 올린 후에도 죽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다.³⁰⁾

26) 에비슨, 앞 책, 224쪽.

27) 에비슨, 앞 책, 224쪽.

28) 에비슨, 앞 책, 223쪽.

29) 에비슨, 앞 책, 223쪽.

기도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에비슨의 입장은 다소 유보적이다. 물론 그가 말하고 있듯이 기도는 의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사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또 일부 환자는 특별기도 후에 극적으로 회복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간절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환자도 있었다. 때문에 에비슨은 일부 환자의 극적인 회복이 기도 에 의한 신적인 개입의 결과인가는 알 수 없다고 솔직히 말한 것이다.

또 맥라렌은 의학과 교회의 관계를 물었는데 그것은 아주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병원, 다시 말해 의학적 치료가 교회 본연의 활동일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이 물음에 대해 에비슨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업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서 주고 있다. 이 말씀은 그의 복음이 만 들고 싶어하는 인간형을 보여주는데, 그는 인간적인 친절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비참함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교회라는 조직체를 통해 이러한 일을 하건, 아니면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 바깥에서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다른 조직을 만들어 이 일을 하건 기독교인의 특성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제시되건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에 의해 고통을 덜어주는 것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따라서 나는 교회, 혹은 교회의 산물이나 헌신적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병원과 다른 모든 기관들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확신한다. 만약 어떤 방법에 의해서이건 의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질병을 치료하는 신의 능력이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현재에도 존재한다면(우리는 그에 대해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한 일은 이 기관의 모든 환자, 혹은 일부 환자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그런 일이 많을수록 더욱 좋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고 신이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드러야한다.

어떤 장소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없으며, 그 불신앙이야말로 현재 그와 같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³¹⁾

여기서 에비슨이 인용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31-46절은 최후의 심판날에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든 이웃을 돌보아주었는가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구절들을 인용하며 에비슨은 복음이 목표로 하는 인간형은 이처럼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틀이나 조직을 통하건 기독교인의 특성은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에비슨은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위, 즉 질병에 대한 치유행위가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에비슨이 치유행위를 기독교의 본질적 활동

30) C. I. McLaren, "Notes on an Enquiry", *KMF* 12-2(1916), p.37.

31) C. I. McLaren, *Ibid.*, p.38-9.

이라고 보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의 치유행위는 반드시 의학적 치료일 필요는 없다. 기도와 믿음에 의한 종교적인 치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사실 치료활동이 교회의 본질적 활동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맥라렌의 물음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그것은 선교에서 의료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누구나 의료는 초기 단계에서 선교의 문을 여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 이후, 즉 초기 선교단계의 어려움이 제거되고 난 이후에도 의료활동이 여전히 선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견차가 존재했다. 일반적으로 복음선교사들은 의료에 도구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에 비해 선교의사들은 의료 자체가 성서적 관점에서도 의미를 가지는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에비슨은 치유가 기독교적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기독교의 본질적 활동이라고 말하면서 의료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일부의 시각에 대해 에비슨은 그것이 가지는 기독교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사람들은 이미 일본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의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선교회가 시간과 돈을 그런 곳에 써야하는지 물을 것이다. 대답은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교훈과 모범을 좇아야 하며, 만일 그것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을 증강시킨다면 그의 정신을 모범으로 보여줘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병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아야 하며, 이것이 선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이해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인간애인 것이다.³²⁾

이처럼 의료에 폭넓은 의미를 부여했기에 에비슨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또 병원에서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을 둘러싼 제반 사회 환경들이 그러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선교사 개인이나 개별 기관의 차원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에비슨은 치료를 방해하는 여러 사회적 요인들 중 병원의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것들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질병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아야할 경우 그 여성이 어머니로서 돌보아야할 어린 자식들과 가족들이 있다면 병원에 입원치료가 어렵다. 또 생계를 책임진 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우 한 집안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남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살펴주는 일들을 병원에서의 치료와 함께 함으로써 치료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32) O. R. Avison, "Survey of Medical Work in Korea",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1917), pp.393, 402.

보았다.³³⁾ 실제로 에비슨은 환자의 집을 방문해 가정환경을 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에 간호사들을 파견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다. 물론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병원의 주요 역할이기는 하지만 환자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사업도 병원의 중요한 역할로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 그것은 질병의 치료가 단순히 의학이라는 기술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한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총체적인 인간애의 발현이자 기독교인의 본질적 의무라는 차원 높은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6. 결론

에비슨은 행동의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일반적인 사상가의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이 곧 그의 사상의 표현이었다. 에비슨은 기독교인으로서, 선교사로서, 교육자로서, 또한 의사로서 그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신념과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과 사상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구체적인 결실을 맺었다. 세브란스와 연희라는 두 기관의 운영과 이 기관을 통해 그가 길러낸 인재들은 그의 사상과 행동이 만들어낸 구체적인 성과의 결정체였다. 거꾸로 그의 행동이 이루어낸 풍성한 결실은 그의 사상이 가졌던 뛰어난 역설하고 있다.

핵심어: 에비슨, 의료선교, 사상, 세브란스, 제중원

33) O. R. Avison, "Social Service and the Hospital", *KMF* 10-7(1914), pp.203-4.

Abstract

Dr. O. R. Avison and His Thinking

YEO In-sok
Yonsei University

Oliver R. Avison (1860 - 1956), a Christian missionary, teacher, and doctor, was a man of action, rather than an abstract thinker. His action was the expression of his thinking. Avison had a firm belief in and a clear notion of his identity and the role assigned to him. His forty-two years' dedication in Korea yielded visible results. He was in charge of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and Yonhee College in Seoul until his retirement of 1935, turning both colleges into extremely distinguished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Graduates of both institutions went on to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Korean society at a time when the nation was suffering under Japanese oppression. The two institutions and their graduates provide some of the most obvious evidence of Avison's achievements in Korea.

Key words: Avison, Medical Mission, Thinking, Severance, Jejungwon